

BASF, 정기보수 예정대로 실시

태광산업도 정기보수 조기실시 안기로 ... 화물파업 타결따라

화물연대 파업 타결로 화물차량들이 운행을 재개하면서 울산항 컨테이너 부두의 화물 반출입이 완전 정상화 됐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등에 따르면, 5월15일 오전 9시부터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량 50대 정도가 평소처럼 컨테이너 부두로 들어와 작업을 하면서 컨테이너 반출입이 정상화되는 등 부두가 활기를 되찾았다.

울산컨테이너터미널 손영규 차장에 따르면,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화물차량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컨테이너를 반출입하고 있으며 반입 감소로 비어있던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다시 쌓이는 등 야적장의 컨테이너 장치 능력이 회복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으로 6월에 예정됐던 정기보수를 앞당겨 실시하려 했던 태광산업을 비롯해 BASF, 현대모비스 등 울산 및 온산공단 기업들은 파업 타결소식에 한숨을 돌리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수출용 화물을 반출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며 “파업이 2일 이상 계속됐으면 6월에 실시하려 했던 정기보수를 앞당겨 실시하는 초비상 대책을 세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Chemical Journal 2003/05/19>